

## 복날

양과 염소 귀해 대신 개를 잡아 보신탕  
상인들 모두 철사... 교외로 나가 포식

여름에 한창 더울 기간이 삼복지간(三伏之間)이다. 복더위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다소 살랑거린다.

중국 고대의 진·한(秦漢)시대 이래로 내려오는 풍속인데 그 기원이

언제이고 참뜻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다.

하지(夏至)가 지난 뒤 세번째 경일(慶日)을 초복(初伏)이라 하고 네번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立秋) 후 첫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하여 삼복이다. 그 사이가 10일간이다. 그런데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간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월복(越伏)이다. 월복일 때에는 그만큼 무더위는 더하다.

중국 현대에 정부로부터 신하들에게 육미(肉糜=고기죽)를 나눠 주었다는



예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어쨌든 고기를 먹는 풍습이 생겼다. 이는 아마 더위에는 식욕이 감퇴되기 쉬우므로 영양 보충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고대에는 양고기를 끓이고 염소고기를 구워먹었으며, 도성(都城)의 네 군데 문[四門]에 개를 죽여 발겨서 꽃음으로써 병을 이방(예방의 사투리)했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양이나 염소가 귀하므로 개를 잡아 장국을 끓여 먹고 서울 4대문에 죽여 내거는 일은 없었다. 개고기를 못 먹는 이를 위해 생각해낸 것이 쇠고기로 흡사 개장처럼 끓이는 「육계장」이다. 그러니까 원래 육계장은 삼복기간에만 먹는 절식(節食)의 하나였다.

서울 사람은 「복놀이」를 무척 즐겼다. 특히 1년내 쉬는 날이라고 별로 없는 상인들은 복날은 모두 세번 거의 철시하고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가지고 교외 수풀 우거진 곳이나 냇가로 가서 포식하며 놀았다. 민어로 회를 치고 매운탕을 끓이기도 하고 참미(참외)나 수박·자두·복숭아 따위도 마음껏 먹는다. 덥기는 하지만 복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술은 「약소주」.

이 때문에 복날 밑에는 개의 희생(?)이 많고 과일값은 다락같이 오른다.

지금도 이 풍속이 남아서 개장국은 보신탕(補身湯)이 되고 미리부터 계획을 짜 들놀이 갈 준비에 바쁘다. 복날이 국경일이라든가 하는 공휴일이면 보신탕 러시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붉은 팔죽을 쭈워 먹는 것으로 넘기는데, 이는 아마 중국 고대 풍속의 개잡은 피를 연상해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모를 내지 못한 천수답도 초복까지 비가 내리면 비록 감수(減收)는 되겠지만 벼농사가 된다고 전해왔다.▲▲

## 영 화 관

수동... 「해피 엔딩」 때는 천천히 돌려  
손님 넘치면 스크린 뒤에 앉히기도

한국인 경영의 단성사, 일본인 경영의 우미관, 역시 일본인 경영의 조선극장 등 셋이 종로에만 몰려 있어서 정립(鼎立) 시대를 이룬 것은 기미년 이후 1920년 들어서서였다. 일본인 상대의 영화관은 대정관·희락관·황금

관·중앙관이 을지로를 중심으로 있었고 남영동에 경룡관이 있었다. 일본 상설관에서는 소위 양화(洋畵)도 하고, 이에 못지않게 일본 영화를 들여다가 했지만, 한국인 상대의 영화관에서는 양화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뭇에 콩

나뭇하는 한국 영화를 조선 극장과 단성사에서 돌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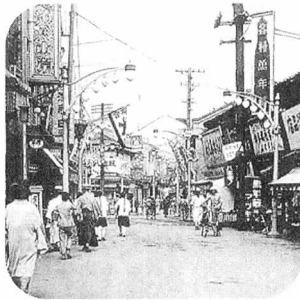
그때까지는 일본 사람이 세운 고등연예관이 있었다가 1913년에는 대정관·우미관이 남북촌에 각기 하나씩 생겼고 가끔

연극장인 광무대에서 뜨내기로 영화를 돌렸었다. 영사기가 하나뿐이었으므로 「필름」의 권(卷)이 바뀔 때마다 새로 갈아끼는 동안은 영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던 것이 3관 정립이 되면서 영사기가 돌씩 있게 됐다.

「모터」의 힘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영사기 기사가 손으로 돌리기 때문에 어느때는 빠르게, 어느때는 천천히 농간을 부리며 돌리기도 했다.

추적하는 장면은 빨리 돌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은 무척 천천히 돌리므로 극중 인물의 동작이 느려졌는데, 이것을 보고 관객은 영화가 끝났을 알고 일어섰던 것이다.

「슬로모션」이 보여진 것은 1925년께였는데 대부분의 관객은 이것은 영사기 기사가 기계를 천천히 작동하는 것이라



고 알고 있었다.

우미관에서는 관객이 넘치면 「스크린」 뒤에도 앉았다. 진짜 초만원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다가 우미관이 화재로 홀랑 타서 새로 지었다. 관철

동 변화가에 지은 것이니까 터를 아끼느라고 객석있는데 변소가 붙어 있어서 지린내가 풍겼다. 딴 자리가 찬 뒤에 하는 수 없이 양쪽 변소 앞에 앉는다.

단성사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린내와 소독약 냄새는 우미관과 같았다. 조선 극장은 복도를 두고 변소가 있어 냄새는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작동은 별로 안했다.

단성사와 우미관이 「호떡집 걸상」임에 비해 조선 극장은 긴 「벤치」였고 의자석(椅子席)이라는 이층 전면의 특색은 무조건 1원씩 받았다(보통석 30전 할때). 야간에만 영업하고 훨씬 뒤에 일요일 낮에 공개했는데 격주로 정전이라 그때는 「가스」불로 전등을 대신했기 때문에 화면이 무척 흐렸었다.▲▲